

공영화 전환 목포 시내버스 '1직영 3민간위탁' 운영

15개 노선 사업권역 4개로 구분...민간 사업자 10월께 선정 종사자 대상 설명회...목포시 "일부 노선 파업에도 안정 운영"

목포시가 지난해 7월부터 비상경영에 돌입한 시내버스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권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직영 3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민간업자가 경영을 포기한 목포시내버스를 인수해 직영(소규모 직영 공영제)과 민간위탁(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등 혼합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공영버스의 사업권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개 권역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3개 권역은 입찰을 거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중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영버스 위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입찰 공고와 평가 등을 거쳐 10월에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적자가 누적된 시내버스의 효율화를 위해 노선을 기존 14개에서 8개로 간소화하는 노선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무안과 영암·신안 등 시계의 노선 7개를 포함해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들 15개 노선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3개 권역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4개

권역 구분은 노선개편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원가와 공공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는 또 공영버스 사업 시행을 앞두고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기존 태원·유진 운수업체 종사자와 신규 구직자 등 운수 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공영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조건 변경, 채용규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형 공영버스는 일부 노선의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발로써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목포만의 특색을 갖춘 선도적인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문영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시가 시내버스 사업권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1직영 3민간위탁' 체제로 전환한다. 목포 시내버스.



압해읍사무소 벽면에 그려진 덩크(Dulk) 작품.

압해도 그래피티 타운, 신안의 새 명소로 뜬다

지난해부터 '위대한 낙서마을' 조성 존원·덩크 이어 빌스도 9월 참여

신안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압해읍 소재지 일원에 새로운 또 하나의 도점, '위대한 낙서마을' (GRAFFITI TOWN) 조성해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월드클래스 그래피티 작가 미국의 존원(JonOne), 스페인의 덩크(Dulk)에 이어 오는 9월에는 포르투갈의 빌스(Vhils)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래피티 타운 프로젝트는 신안군의 '1심 1무지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육지와와 접근성, 압해읍이 가진 다양한 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기고 활력 있는 신안의 관광을 만들기 위해 그래피티 아트를 소재로 다뤘다. 그래피티 타운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작품은 압해읍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광지 건물인 '압해읍사무소'를 도화지로 삼았다. 이는 경작된 조지사회의 상징인 공공건물을 배경으로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Expedition Expert로 유

명한 덩크(Dulk)가 작업에 참여했으며, 작품 소재에 대해서는 1년여 신안군과의 고민과 협의 끝에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과 그 갯벌 속에서 자생하는 생물들,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에 영감을 얻어 노랑부리저어새, 동박새, 호랑이 등을 벽에 담았다. 두 번째 작품은 미국의 존원(JonOne)이 참여했다. 작품이 설치된 곳은 덩크(Dulk)의 작품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신안군에서 신혼부부에게는 1만 원에 빌려주는 아파트인 '팰리스파크' 두 개 동의 벽면에 덩크만의 생기 넘치는 작품을 선보였다. 존원(Jon One)은 2015년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뇌 문화예술훈장을 수상하는 등 그래피티 아트계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LG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수많은 협업을 통해 예술세계를 확장해 왔고, 국내에서는 가수 윤종신과 앨범 콜라보레이션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뉴욕 할렘가 태생으로 17세부터 그래피티를 해왔다. 그러던 중 반도(Bando)라는 프랑스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그의 예술가로서의 소질을

알아보고, 프랑스 파리로 초청하였고, 파리를 방문한 그는 그 후 줄곧 파리에서 지내며,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안군은 국내에서 생소한 그래피티 아트의 대중화를 위해 '낙서의 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볼법이 아닌 합법적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작품은 무더위가 지나가는 9월께 작가의 조형 언어인 드릴로 벽이나 바다에 단차를 만들어 음영을 주는 작품을 표현하는 포르투갈 출신 빌스(Vhils)가 작업에 참여한다. 신안군의 생소한 세계적 그래피티 타운 조성의 계기는 '2023년 아시아 최대 어반&스트리트 아트 페스티벌'인 '어반브레이크'와 MOU를 체결하면서 부터이다. 그동안 그래피티 타운은 국내에서 시도한 사례가 없어, 신안군이 최초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누구든지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머뭇거리려는 순간 다른 누군가는 시작할 것이고 그때 그 길을 따라간다면 실패한다"면서 "신안군은 국내외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노화읍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4천㎡에 43종 9095주 수목 심어

완도군이 노화읍 이포리 건강테마촌 일원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했다. 지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인근 유휴 부지에 숲을 조성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생활권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화 건강테마촌은 체육시설 등이 설치됐고 노화읍·보길면 주민의 문화 공연, 어린이 놀이공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늘 등 녹지공간이 부족했다. 군은 수종 선정부터 도입 시설물 등 설계 단계부

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숲을 조성했다.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노화 건강테마촌 일원 4천㎡ 부지에 구실잣나무, 먼나무 등 43종 총 9천 950주의 수목을 심었다. 수목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토양 개량과 전체 수종의 절반 이상을 지역 자생 수종과 난대 수종을 식재했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나무은행에 보관된 대형 수목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규모 있는 숲 조성을 완료했다"며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청용어촌체험마을 3일 '개매기 체험'

진도군 진도를 청용어촌체험마을 앞 갯벌에서 오는 3일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사진> 개매기는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갯바닥으로 하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이다. 물이 빠진 갯벌 위 그물에는 주로 송어, 농어, 돔 등의 다양한 어류가 걸리게 되며 이때 체험 관광객들이 갯벌 안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직접 잡는다.

체험료는 어른 2만원, 어린이 5000원이다. 체험료는 어촌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개매기 체험을 위한 갯벌 입장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진도군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청정해역 보배섬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들과 평생 잊지 못할 독특한 체험인 개매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시의회 오늘부터 '의원 민원당번제' 운영

목포시의회가 1일부터 '목포시의회 의원 민원당번제'를 운영한다. '의원 민원당번제'는 조성오 의장이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사에서 밝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 행보다. 비회기 중 시의회 방문·전화민원을 당일 '당번의원'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민에게 신뢰감 있고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전한다. /목포=정영선 기자 jbs@kwangju.co.kr

다는 취지다. 민원당번제는 전체의원 22명 중 초선의원 15명이 순번제로 운영된다. 의원 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의회를 방문한 민원인이나 전화민원인에 대해 민원상담을 한 후 지역구 의원, 목포시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등을 연결해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목포=정영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군, 통합사례관리팀 신설...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영암군이 통합사례관리팀을 신설, 위기가정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위기가정을 구출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조직개편으로 '통합사례TF'를 신설 운영중이다. 분리돼 있던 희망복지팀의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와 드림스타트팀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통합사례관리의 드림팀으로 영암군이 혁신 복지에 나선 이유는 가족구조 변화와 다양성으로 요약되는 현실에 대처하고 위기가정에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아동 관리를 따로 해오던 기존의 분산된 체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합 서비스도,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사용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고려됐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압해도 해역에

감성돔 종자 23만 마리 방류

목포시가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감성돔 수산종자 23만 마리를 압해대교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 <사진> 목포시는 방류사업비 1억 원으로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감성돔 종자를 매입했으며, 서남해안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경계해역에 방류했다. 감성돔은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시 생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과 낚시객,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추후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어업자원 증가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피볼락, 전복, 넙치, 감성돔 등 총 613만 마리를 방류했다. 목포시는 수산종자의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한 어장주변에서는 방류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 중 어획된 치어는 재방류해 어업인들이 스스로가 수산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통한 수산자원 조성이 자원회복과 어업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어업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